‘첫 교내 감염’ 수능 일주일 앞두고 광주 교육계 ‘비상’

상일중·서석중 학생 3명 확진…학교 내 방역 철저 당부

고1·2학년 원격수업 전환…수험생들 긴장 속 막바지 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나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내 감염은 학사일정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등으로 확산세가 무섭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26일 방역당국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오후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광주 635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밤 사이 같은 반 친구도 양성판정을 받아 광주 646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2명이 나오면서 학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광주 학생들의 감염은 교내가 아닌 다른 감염원의 n차 감염으로 인해 이뤄졌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상일중은 이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광주 635번 확진자의 오빠인 서석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밤 사이 양성판정을 받아 광주 64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서석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3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당국은 특히 다음 달 3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에게까지 감염이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죄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이때문에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수능 다음날인 12월 4일까지 고등학교 1, 2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정상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26일 오전 광주 남구 대촌동 대촌농협 미곡창고에서 농협관계자들이 2020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달 광주 확진자 62.4%는 20~40대…자녀 감염으로 이어져

방역 어려움 가중…모임 자제 당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연령대가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서 방역의 어려움도 커졌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광주의 지역 감염자 125명 중 78명(62.4%)은 20~40대였다. 연령대별로 10대 미만과 10대 11명(8.8%), 20대 35명(28%), 30대 22명(17.6%), 40대 21명(16.8%), 50대 이상 36명(28.8%)이었다.

2월 첫 감염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들의 연령 분포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대비된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확진된 647명 가운데 324명(50.1%)이 50대 이상이었다.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50대 이상이 2명 중 1명꼴이지만, 이달 들어서는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얘기다. 한때 70%에 육박했던 50대 이상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30~40대 확진자들은 활동력이 왕성한데다가 학생인 자녀들의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해 방역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광주에서는 이달에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마다 전수 검사가 이어졌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젊은 층에서는 공간적인 이동이나 식사, 술자리도 상대적으로 많다”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모임, 행사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래 진료를 중단했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이 26일 오전 본관에서 진료를 예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재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양곡 방출 방침 철회하라”

전농 광주전남 성명 “코로나 식량위기…곡물 150만t 비축해야”

농민단체가 정부의 정부 양곡 방출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최근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부양곡 방출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쌀값 하락을 부추겨 흉작에 신음하는 농민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정부 양곡 방출 대신 코로나 19 식량 위기에 대비해 주요 곡물 150만t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부르는 시장방출 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코로나 19 식량 위기에 대비해 쌀과 보리, 밀, 콩 등 주요 곡물 150만t을 국가재난 비상식량으로 비축하라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양곡 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0년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힌 바 있다. 정부 양곡을 37만t 범위에서 시장에 공급하되 수요 변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물량을 조정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방출 시기에 대해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수확기 재고미 방출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를 비껴가면서도 쌀 가격은 하락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쌀값 안정화를 명분 삼아 수확기 이후라도 정부미를 방출할 경우, 생산량 감소로 정상화되는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농민 피해를 가져온다는 게 농민단체 주장이다.

농민단체는 쌀 공공 수급 제를 도입해 국민에게는 안정된 가격에 쌀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3만t, 예상 생산량보다 12만t 감소한 351만t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생산량 전망치에 대해서도 “정부 전망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줄었다. 반세기만의 대흉작으로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바이러스 전파 용이한 겨울철, 일상공간서 동시다발 n차 전파

코로나19 신규 확진 폭발적 증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핵심 감염집단이 없는 상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대부분의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해지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합쳐져 확진자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53명으로 전날보다 201명이 늘었다. 500명대 신규 확진자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인 3월 3일(600명) 이후 268만의 최다 기록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과 지인 간 친목모임,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등 교육시설, 교회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음식점에서 지인이 감염되고, 이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퍼진 데 이어 산악회와 다중이용시설, 직장 등에서 다시 전파되는 등 한 번의 노출로 수십 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있다.

앞선 유행에서는 특정한 집단에서 환자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어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격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역학조사가 놓친 밀접접촉자가 한두 명씩 누적되다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환자가 한 명 나와서 주변을 검사해보면 한꺼번에 몇십 명씩 환자가 더 발견된다”면서 “그간 전국에 감염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는 이번 유행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위험요인으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228억 지급…전국 최대

전남도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논이모작 직불금 228억원을 26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이번 직불금은 논이모작을 실시한 도내 2만4000농가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농가 통장에 입금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쌀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을 비롯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 지급되며, 지난 6월까지 도내 총 4만5000ha 규모가 재배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 받아 자격요건 및 이행상황 등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원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 등도 지원했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금 등과 함께 이번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노안지구 블록형·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가격

용도	필지수	면적(㎡)	분양금액(원)	(분양) 신청예약금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공급방법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	5,507	2,354,242,500	1억원	50%	100%	3층	추첨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17	322 ~ 421	148,120,000 ~ 194,502,000	필지별 700만원	50%	100%	2층	추첨

* 사업대상지 주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55번지 일원

2. 분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분양공고	’20.11.27(금) ~ 12.10(목)	신문(11.27)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11.27~12.10)
분양신청서 제출	’20.12.07(월) 9:00 ~ 12.10(목) 13: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 온라인청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가능, 신청금 납부계좌는 참가 신청시 부여
신청예약금 납부	’20.12.07(월) 9:00 ~ 12.10(목) 14:00	
추 첨	’20.12.10(목) 15:00	
당첨자 발표	’20.12.10(목) 18:00	
계약체결	’20.12.14(월) ~ 12.18(금) (평일 10:00 ~ 17:00)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3. 분양 신청자격 : K-water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는 분양자격 제한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나.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 실수요자(분양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 대금납부방법 : 신청자가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및 잔금(90%)		비고
단기납부	분양가	계약체결시	3개월 이내 (80%)	6개월 이내 (10%)	할부이자 미부리
분할납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체결시	1년 6개월내 3회 균등납부		할부이자 부리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약체결시	3년내 6회 균등납부		

※ 세부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 분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안내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경영과 ☎(062) 600-2117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2020. 11. 27.

K water 영산강보관리단장

책임제한절차개시공고(2차)

이 법원 2020책1 선박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6.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다.

다 음

1.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책1 선박책임제한
2. 가. 신청인 : 삼진해운주식회사(선박소유자)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14(서귀동)
대표이사 김상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나. 수익채무자
- 우경인(부산 해운대구 좌동 1348 효성코오롱아파트 112동 1801호, 별지 1 기재 선박의 2등항해사)
- 한국해운조합(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대표자 회장 고성원, 별지 1 기재 선박의 공동선박보험자이자 단독 선주배상책임보험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별지 1 기재 선박의 공동선박보험자)

3. 주문 : 별지 1 기재 선박의 별지 2 기재 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변호사 박정남(사무실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25, 3층, 광주지방변호사회 해남지원 관내 변호사)
5. 책임한도액 : 313,125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공탁된 금액 : 583,351,031원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장소 : 2021. 2. 10.까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종합민원실
7.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 2021. 3. 5. 14: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 법정
8. 주의사항
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이 있는 자는 그 채권을 제7항 기재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결정 연월일 : 2020. 11. 16.

2020.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장 : 판사 **김재근**, 판사 **정희철**, 판사 **김우진**

별지 1
선박의 표시
- 선박의 종류와 명칭 : 삼진럭키3호
- 선적항 : 서귀포시
- 총톤수 : 1,375톤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 1개
- 선질 : 강
- 기관의 종류와 수 : 디젤엔진 1기
- 진수년월일 : 1987년 7월 28일 /이상

별지 2
사고의 발생
- 발생일자 : 2018. 8. 15. 04:01경
- 발생장소 : 제주도 우도 북서방 약 10.6마일(북위 33도 41분 43초, 동경 126도 53분 40초) 해상
- 사고유형 : 기선 삼진럭키 3호가 위 발생일자에 위 발생장소를 항해하다가 선수 구상부분으로 한유코리아호의 좌현 3번화물창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상.

자본금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1월 26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500,000,000원 중 금1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10,000주를 매수하여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50,000주를 4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주식회사 그린특수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군서공단로 41
사내이사 박 용 섭

조직변경공고

당회사는 2020년 11월 26일 임시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이 의견 일치되어 케이제이이엔씨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회사에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케이제이이엔씨 유한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예가람타워 204호 (빛가람동)
이사 민 근 이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27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담은농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322-8동
청산인 김욱

산행안내

12월1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2월1일(화) 논산 탐정호 · 출렁다리 · 소풍길 탐방,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분, 월드컵북문 뼈통건너편 07:30, 한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승장 08:00 ※ 다음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5일(토) 여수 개도 천재봉 · 봉황산, 봉선동룻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